

SK케미칼, 아이티에 PETG 공급

식수 제조용으로 워터콘용으로 ... 하루 2480리터 식수 제조 가능

SK케미칼은 아이티 재난 현장에서 식수 제조에 사용되는 워터콘(Watercone)의 소재인 고기능성 투명 플라스틱 PETG(Glycol Modified Polyethylene Terephthalate)을 공급한다.

PETG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로 만든 고기능성 친환경 소재로 세계적으로 SK케미칼과 Eastman 2곳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마케그룹이 PETG로 제작한 직경 80cm 크기의 원뿔형 워터콘은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구로 워터콘 바닥에 바닷물을 채우고서 태양광에 하루 정도 노출시키면 1.5리터의 생수를 받아낼 수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워터콘 제작기업인 마케그룹이 아이티 지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PETG 지원을 흔쾌히 약속했다”면서 “3월 중순 아이티에 도착할 워터콘은 1653개로 하루에 약 2480리터의 식수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밝혔다.

또 “SK케미칼의 기술력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티 재난현장에서 뜻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08>